



#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5년 11월 23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2장

담당: 홍보실 윤정욱 전문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

## 아산정책연구원, '아베정권의 미래구상과 한일관계' 학술 심포지엄 26일 개최 -일본의 꿈, 아베의 꿈-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오는 26일(목) 오전 10시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한일수교50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아베정권의 미래구상과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아베수상의 집권 이후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지향하는 일본/아베의 꿈(日本/安倍の夢)을 규명하고 이 꿈의 유래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함재봉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이 축사를 하며, 토론자로는 일본 주요 언론인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다.

\*취재를 희망하시는 언론인은 25일(수) 오후 12시까지 1)소속 2)성명 3)연락처 4)오찬 참석여부를 [홍보실\(communciations@asaninst.org/ 02-3701-7349\)](mailto:communications@asaninst.org)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동시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행사개요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http://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 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91위) 선정되었습니다.

## 행사 개요

1.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 오전 10:00 - 17:10
2. 장 소: 아산정책연구원 1층 강당
3. 주 제: 아베정권의 미래구상과 한일관계 '일본의 꿈, 아베의 꿈'

09:30-10:00	<b>등 록</b>
10:00-10:30	<b>개회식</b> 개회사 : 최진우 한국정치학회 회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10:30-10:40	<b>휴 식</b>
10:40-12:20	<b>제1세션. 일본의 꿈, 아베의 꿈은 무엇인가</b> 사 회 : 최은봉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도요우라 준이치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장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대학원 교수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
12:20-13:30	<b>오 찬</b>
13:30-15:10	<b>제2세션. 일본의 꿈, 아베의 꿈 그리고 데자뷰</b> 사 회 : 김상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 론 : 함동주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엔도 켄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김준섭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 전 서울지국장
15:10~15:30	<b>휴 식</b>
15:30~17:10	<b>제3세션. 현실적 꿈인가, 한밤의 꿈인가?</b> 사 회 :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 토 론 : 심규선 동아일보 대기자 미즈노 도모히코 일본 전 중의원의원 · 하토야마재단 이사 이치카와 하야미 아사히신문 편집보좌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17:10	<b>폐 회</b>